

문화

# “인간 번뇌 유채색으로 검정 복주머니는 진리 상징”

## 개인전 여는 홍미림 작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해요. 화나고 슬프고 짜증나는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존 제 그림들이 행운의 바람을 담았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마음을 잘 살피 진정한 나를 찾는 진리의 세계를 표현해내는데 주력했어요.”

연꽃 향수병 시계 등의 사물을 통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던 작가는 이제 그 눈길을 내면으로 돌렸다. 마음공부라는 것을 접하고 난 뒤 생긴 변화다. 그녀는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 했다. 홍미림 작가의 개인전이 4월 23일~29일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마음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홍미림 작가의 개인전이 4월 23일~29일까지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마음공부하며 그려낸 20여 점  
4월 23일~29일 선화랑서 전시

“아직은 초보지만 앞으로 꾸준히 마음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제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제에서 좀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홍미림 작가는 그동안 선화랑, 갤러리이즈, 중국 베이징 상상국제미술관 등 국내외에서 13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2 ‘중환건교 20주년 중환후호사회화류전 국제작가상 수상’, 2010 ‘제2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는 9월 명동 세종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02) 734-0458

면 그만두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질문을 하고 난 뒤 감기몸살로 그림을 두달 동안 놓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제가 정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붓을 들었죠.”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그녀의 작품 세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마음의 다양한 변화를 화려한 색채로 표현해 진리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제가 채색화를 그리다 보니 주로 민화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지고 와요. 민화가 인간의 복을 구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막연한 행운보다는 내면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내면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었죠.”

마음의 변화를 유채색으로 알록달록 표현하고 검정색 복주머니를 통해 그 안 담긴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진리 그리고 꿈’,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의 흐름을 뿜어나가는 나뭇가지로 표현한 ‘그대 마음속의 이야기’ 등 20여 점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아직은 초보지만 앞으로 꾸준히 마음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제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제에서 좀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홍미림 작가는 그동안 선화랑, 갤러리이즈, 중국 베이징 상상국제미술관 등 국내외에서 13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2 ‘중환건교 20주년 중환후호사회화류전 국제작가상 수상’, 2010 ‘제2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는 9월 명동 세종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02) 734-045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그대 마음속이야기'



복주머니에 담긴 진리를 표현한 '진리 그리고 꿈'

# 백세의 청풍은 속세 생각 끊게 하고

## ‘안수정등’의 가르침

비승비속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시습이 금산사에서 하룻밤 묵으며 남긴 시를 차운한 윤중(尹拯 1629~1714)작품이 돋보인다. 윤중은 우암 송시열의 제자였으나 후에 그와 학문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소론의 영수였다. 학문도 깊었지만 효행의 실천이 남달랐던 그의 문집 <명재유고> 1권에 금산사와 관련한 시가 보인다. 먼저 김시습의 시를 차운한 작품을 보자. 제목은 ‘금산사(金山寺)에 노닐며 김열경(金悅卿)의 시에 차운하다(遊金山寺 次金悅卿韻)이다.

부세수여차지관(浮世誰如此地寬)  
세심태경도청단(細尋若徑度清澗)  
소번자문수등정(疎煩自問垂藤井)  
선승선등노회단(選勝先登老檜壇)  
담장증하추색월(峯巒蒸霞秋色靄)  
만입비우간상환(滿林飛雨澗聲寒)  
청풍홀여동봉산(淸風忽憶東峯子)  
삼창유편아이란(三唱遺篇夜已闌)

또 세상에 이곳처럼 한가한 곳도 있으리  
이끼 긴 오솔길과 맑은 여울 따라 걷네.  
등나무 드리워진 우물에서 번뇌 씻고  
검은 천나무가 선 석단(石壇)에 오르누나.  
겹겹의 산봉우리 가을빛이 얽혀 있고  
술 가득히 비 날라니 시냇물 소리 차네.  
청풍 불자 갑자기 동봉자가 생각나서  
남긴 시 읊조리며 밤이 벌써 깊었구나.

이 시의 창작 배경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금산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김시습의 시를 생각하고 그에 차운해 한 수를 남긴 것’이다. 윤중이 금산사를 찾은 이유는 수련에 그대로 드러난다. 세속의 번뇌를 잊어버리고 한가한 시간을 즐기 고자 오솔길과 개울을 따라 온 것이다.

그렇게 당도한 절에서 시인은 유명한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예를 들며 스스로 번뇌를 씻어 마음을 정갈하게 하였음을 드러낸다. <비유경> 등에 나오는 ‘안수정등’ 이야기는 목마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꼬끼리와 등나무뿌리, 독사, 꿀, 쥐, 우물 등을 통해 설명하는데 사찰의 벽화에도 많이 그려진다. 어쩌면 윤중도 금산사에서 이 ‘안수정등’의 가르침을 그런 벽화를 보고 ‘등나무 드리워진 우물에서 번뇌 씻고’라는 시상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방등계단으로 올라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상념에 사로잡히다가 김시습의 시가 생각나 읊조리는 사이 밤이 깊었다. 물론 밤이 깊었다는 표현은 시간적인 묘사일수도 있지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경지를 은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제목에 나오는 김열경은 김시습의 제자였다.

이 시에서 윤중은 금산사에 얽힌 역사적 사건 하나를 차용하여 밝히고 있다. 시의 말미에 후백제의 견훤과 그의 아들 신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다. 시의 본문에서 견훤의 말년을 두고두고 추모이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 ① 금산사 ①



후백제의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당했을 때 쌓은 것으로 전하는 성곽과 성문. 금산사 초입에 있으며 근래 복원 복원됐다.

습의 호이며 미련에 나오는 ‘동봉자’ 역시 김시습의 별호이다.

## 아들에게 감금된 견훤의 이야기

윤중의 문집 <명재유고> 1권에는 ‘금산사(金山寺)에 노닐며 김열경(金悅卿)의 시에 차운하다’에 이어 ‘또 이목은(李牧隱)의 시에 차운하다(又次李牧隱韻)’ 또 장계곡의 시에 차운하다(又次張谿谷韻)’ 등 3편이 나란히 실려 있다. ‘장계곡’은 앞에서 시를 살펴 본 본 장유(張維)다. 목은 이색의 시에 차운한 작품을 보자.

쌍계명옥향산중(雙溪鳴玉響山中)  
승지장래제일공(勝地裝來第一功)  
장불양장전동부(丈佛昂藏專洞府)  
종대청형부림궁(鍾臺淸迥俯琳宮)  
견훤사업천년취(甄萱事業千年與)  
목노시편백세풍(牧老詩篇百世風)  
총시유인진려절(總是遊人塵慮絕)  
추광사의의난궁(秋光徙倚倚難窮)

-사죽견훤소창 기후원자신검 수원어차사 (寺即甄萱所創 其後甄子神 囚置於此寺)

산속에 메아리치는 쌍계의 물소리가  
승지를 만들어 준 제일의 공신이지,  
거대한 미륵보살 한 고을을 압도하고  
종소리 맑게 울려 사찰을 감싸누나.  
견훤이 한 사업은 천 년의 추모이요  
목은이 남긴 시편 백세의 청풍이지,  
이모두가 나그네의 속세 생각 끊게 하여  
가을녘 아래 서성이며 마음을 못 잡겠네.  
-이 절은 견훤이 창건한 것인데 뒤에 견훤의 아들 신검(神劍)이 견훤을 이 절에다가 두었다.

이 시에서 윤중은 금산사에 얽힌 역사적 사건 하나를 차용하여 밝히고 있다. 시의 말미에 후백제의 견훤과 그의 아들 신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다. 시의 본문에서 견훤의 말년을 두고두고 추모이

되었지만 목은의 시편은 ‘백세의 청풍’이라고 찬탄했는데,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말미에 절의 내력을 설명한 것이다. 지금도 금산사 초입에는 성곽의 흔적이 있는데, 견훤이 아들에게 감금당하다 시피 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윤중이 차운한 이색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빼어난 절창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견훤의 사건에 빚어 이색의 작품을 ‘백세의 청풍’으로 찬탄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중이나 김시습, 이곡, 장유 등 선비들에게 금산사는 인간 세상의 번잡함이 사라진 곳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시를 쓰는 선비들은 수행자의 입장이 아니었고 다만 세속의 번잡을 씻고자 산사를 찾은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들의 시는 하나같이 속세의 근심으로 돌아가며 끝을 맺는 것이다.

고려 말의 선비 허백(許伯 ?~?)의 ‘금산사’라는 시 역시 절 풍경은 그림같이 묘사했지만, 마음의 고요는 얻지 못했다.

고사의산록(古寺依山麓)  
고평압수애(高 壑壓水涯)  
곡한원규월(谷寒猿叫月)  
송명학소지(松暘鶴巢枝)  
풍인종성원(風引鐘聲遠)  
파요탑영이(波搖塔影移)  
애한유유벽(愛閑吾有癖)  
갱여노승기(更與老僧期)

유서 깊은 절은 산기슭에 의지했고  
높은 용마루는 물가를 누르고 있네.  
골짜기가 차니 잔나비는 달빛 속에 울고  
소나무 숲 어두우니 학은 가지에 깃든다.  
바람은 종소리를 끌어 멀리 울려 퍼지고  
물결은 탑 그림자를 흔들며 옮겨가네.  
나에게는 한가로움을 사랑하는 병 있어  
다시 노승님 만날 날을 기약 하노라.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 (사) 호국불교조계종



# 불기 2558년 금강계단 구족계 산림 및 전종도 법계고시 준비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 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발원하여 해당부분 전 종도 아래와 같이 제방에 준비 공고 합니다. (특히 법계 품수자는 준비에 만전을 기여할 것)

원로원장 대응  
교육원장 봉덕 고시위원장 일봉 고시위원 혜명, 대일, 의광, 무어  
고시부위원장 용현 (경주안강 원라사)

- ※ 사미계
- ※ 구족계 산림
- ※ 법계 고시
- 장소 : 법계고시사 관음정사(부산역 앞)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관음정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부산역) 문의처 : 총무 010-4566-4504, 051)442-5658, 468-5657 팩스 051)442-5659  
호국불교조계종 http://jogyong.kr / 관음정사 www.happybuda.kr / E-mail : OK-1207@hanmail.net

(社)護國佛教 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 우리춤 체조, 한국무용, 불교무용 연구소

- 원장 : 조론심
-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30 051)512-0115, 010-3834-6677
- 우리춤, 체조 전문지도 자격증반 수시 모집중!

## 수봉전자 (불교음형기기 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9(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http://www.kukjeav.com
- 010-3832-8855 수봉 합창